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남가주 한인·우크라 커뮤니티 전쟁 승리 및 평화 염원

미주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회장 이동울)와 우크라이나 문화센터, 우크라이나 아트센터 등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와 평화를 염원하는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한국·우크라이나 연합 자선음악회 ©기독일보

지난 18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된 음악회는 남가주 한인교우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한데 모여 전쟁의 아픔을 공감하고 양국 음악가들의 협연을 들으며 승리를 위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자리였다.

음악회는 한·우 연합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이영주, 마가리타 쿠지나, 테너 위겐 김, 최원현, 오위영, 보컬 아시아 고스카 등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음악인들이 나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감성과 정취를 물씬 풍기는 노래로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 외대합창단과 미주 여성 코랄, LA 목사 중창단 등은 테너 오위영 목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언어로 합창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멜로디가 연주되자 모두 숨죽이며 아파했고, 한국의 트로트와 흡사한 우크라이나 국민가요가 연주될 때는

박수를 치며 공감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송정명 목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7개월 넘도록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

회장 진유철 목사는 “침략과 거대한 인권 유린 앞에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치유를 위해 남가주 한인커뮤니티가 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길 기도하자”고 전했다.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이동울 회장은 “음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우크라이나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양국의 음악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까지 하나됐

던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기도회를 통해 모금된 3만 1천 달러를 우크라이나 문화센터에 전달했던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우크라이나영사관을 통해 현지 국립병원에 전달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상자와 난민, 병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LA 방문한 연세대 서승환 총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시다”



최계희 권사의 성경봉독 후 지용덕 목사(미주 양곡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9:28-29)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용덕 목사는 “이민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적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연세동문들은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민자의 모범이 되자”고 설교했다.

연세 미주 총동문화 이태섭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답사한 서승환 총장은 “미주 연세 동문들과 연세조찬기도회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면서 “연세동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이민사회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박종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와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화회(회장 이태섭)는 지난 18일 오전 7시,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을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서승환 총장은 미주 지역 연세동문들의 협력과 성원을 당부했다.

정요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총무 김철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부회장

기쁜우리교회 이웃과 함께 하는 ‘한가을밤의 음악회’ 연다

오는 10월 1일(토) 오후 7시, LA 챔버 콰이어 등 출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10월 1일(토) 오후 7시, ‘이웃과 함께 하는 한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소프라노 이영주, 알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 베이스 이정욱, 피아노 김유경과 LA 챔버 콰이어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온 가족이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쁜우리교회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선율을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음악회 참석은 무료이며, 음악회 후 다과와 음료가 마련된다. 주차는 교회 앞에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차일드 케어가 제공된다. 이인규 기자 문의) 기쁜우리교회 818-662-0400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9%이자가 가능
2.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NEW 2022 HYUNDAI IONIQ5 SE
NEW 2022 HYUNDAI TUCSON SE
NEW 2022 HYUNDAI SANTA FE SE
NEW 2022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남가주 연세 목회자·평신도 동문 “연세 정신으로 연대할 것”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 제21대 남가주 연목회 회장 취임

“저는 연세대에 빚진자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대학시절부터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아내도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했고요. 우리 연세대학교의 건학 정신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있습니다. 연세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남가주 지역 연세 목회자들과 연세대 평신도 신앙인들이 연대해 동문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연세목회자회(이하 연목회)는 지난 19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미주복음방송 사장인 이영선 목사를 제2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영선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을 적극 영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 남가주 연세목회자회 회장 이·취임식 기념촬영

입해 연목회 사역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목회자가 아닌 연대 동문 신앙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확대,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신도 연세대 평

신도 동문들도 연목회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연목회는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6일(주일) 부에나팍 교회에서 있을 연세 추수 감사예배를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와 공동 개최해, 남가주 연세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연목회 신임회장 이영선 목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70)를 졸업한 뒤 한화그룹 이사, 남가주 밀알선교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주복음방송 사장, 세계한인기독인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슬퍼함에서 회복과 기쁨으로’란 주제로 이일하 목사(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효남 목사(Healthcare Chaplains Ministry Association·HCMA), 천진석 목사(살림교회)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동욱 기자

원더걸스 선예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너무 멋있었다’”

2022 남가주 밀알의밤 게스트로 선정

결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이자 현재 ‘마마걸’ 멤버로 활동 중인 ‘선예’가 오는 9월 30(금)부터 10월2(주일)까지 개최되는 ‘2022년 밀알의밤’ 게스트로 나선다.

인기 아이돌 가수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만나 섬김과 나눔, 헌신의 길을 겸손히 가고 있는 선예 사모는 이번 밀알의밤에서 진솔하고 따스한 이야기로 남가주 교민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9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선예는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꾸며 자라다 서울에 올라와 우연히 응시한 연습생 오디션에 합격했다. 모두가 선망하는 연예인을 꿈꾸며 시작한 연습생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쟁과 고된 훈련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어려운 연습생 시절이었지만 경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외로운 마음을 다독여줄 친구조차 찾기 쉽지 않았다.

원더걸스는 화려한 데뷔에 이어 국내 가요계를 석권하고 미국까지 진출해 맨하탄에서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언제나 마음은 한구석은 허전했다.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연속적인 죽음을 경험하며 더욱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됐다.

선예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이돌로 성공가도를 달린 후였다. 어느 날 참석한 주일예배에서 ‘십자가의 도’란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에 감자

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신데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진정한 겸손과 섬김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너무 멋있었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선예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2011년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로 구호활동을 떠나게 됐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지진과 태풍,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아이티의 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그동안 개인적인 성공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고. 특히 아이티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가 화려한 결그룹으로 인기정상을 달렸을 때보다 훨씬 큰 행복감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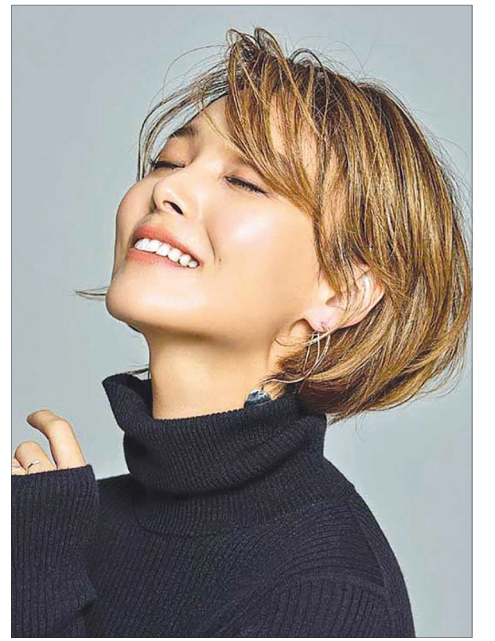
선예는 아이티 구호활동을 계기로 만난 ‘제임스 박’ 선교사와 2013년 부부의 연을 맺었고 5년 동안 활동한 원더걸스에서 탈퇴했다.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친 결그룹 활동을 접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지만, 예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 박 선교사와 함께 다양한 선교,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아이티 선교도 다시 여러 번 다녀왔고 각종 간증, 찬양 집회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선예는 “원더걸스로 활동하며 가수로 정상 위치까지 올랐지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며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느끼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캠프제이워십’과 함께 CCM 〈예수가 보이네〉를 발매하기도 했다. 〈예수가 보이네〉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요한복음 14장19절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했다. 선예는 이 노래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았다.

김동욱 기자 원더걸스 출신 선예 @선예 인스타그램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오는 10월 24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오는 10월 24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선교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녀들의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연합회는 지난 1회(2019년)에는 15명, 2회(2021년)에는 5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50명 이상의 선교

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프대회 참가비는 150달러이며 그린 피와 점심, 저녁 만찬이 포함된다. 교회와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출원인 시 2만 달러 현금 지급을 비롯해 한국 왕복항공권, 골프용품 및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

신용 회장은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을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한다”며 “골프 대회를 통해 교제를 나누고 OC교계에 선한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참가 신청) 신용 회장 (562-399-2022) 윤우경 이사장 (213-500-5449)



기쁜우리교회

초대합니다

어느새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지나 선선한 바람이 옷깃에 스치는 계절, 가을입니다. 팬데믹과 더위로 한 동안 지쳤던 시간을 뒤로 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심을 얻고자 작은 음악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 가을 밤의 음악회” 에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일동

... 한 가을 밤의 음악회 ...

일시 2022년 10월 1일 오후 7시

장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21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주최 기쁜우리교회

후원 미주 CGN TV
Glendale Presbyterian Church

* 음악회후 다과와 음료로 간단한 리셉션이 있습니다.
* 교회앞 무료주차와 차일드 케어가 제공됩니다.

출연진


소프라노: 이영주


알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


베이스: 이정욱


피아노: 김유경


LA Chamber Choir

미드웨스턴 온라인 컨퍼런스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요한일서 읽기”

제12회 강사로 세계적인 석학 폴 트레빌코 교수 초청

‘교회를 위하여’(For the Church)의 기치로 복음적이고 실재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지난 달 29일, 오타고 대학교(University of Otago)의 폴 트레빌코(Paul Trebilco)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요한일서의 하나님 중심성 :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요한일서 읽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트레빌코 교수는 바울과 요한서신 연구의 권위자이며, 특별히 에베소 지역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신약성서 학회인 Studiorum Novi Testamenti Societas (SNTS)의 일원이자, 뉴질랜드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의 펠로우이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The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트레빌코 교수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동일한 저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13:23)라 알려진 장로 요한(John the Elder)이, 요한일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중심성을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 목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의 의미와 중대성을 풀어내는 해석으로 저술했다고 주장했다.

트레빌코 교수는 그 근거로 첫째, 요한일

서가 요한복음 이후에 저술 되었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요한복음과 해석적 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점, 가현설적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자들의 주장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그리고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전 영역에 걸쳐 언어와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둘째, 네 개의 단어(“거함,” “아는 것,” “빛,” “계명”)는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각각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 단어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반면, 요한일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복음서인 요한복음과는 달리, 요한일서는 성부 하나님 중심의 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로 지난 20-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요한 문학의 해석가인 Raymond E. Brown의 견해인 ‘요한공동체의 탈퇴자들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님 중심성이 발전되었다’는 주장을 비평했다. 그 근거로 요한일서 2:18-25 이전에는 탈퇴자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과 요한복음의 초점은 요한일서 5:13절이 언급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점을 들



폴 트레빌코 교수

며 Brown의 견해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로 요한일서의 더 위대한 하나님 중심성을 향한 움직임/전환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다. 이 설명은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임무와 결과를 요한일서가 사유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56; 15:4-7절에서 언급된 예수님과 믿는 자의 상호적 거함이 요한일서 2:6; 3:24; 4:12-16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믿는 자의 상호적 거함으로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1:18; 14:9; 17:3

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임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과의 교제로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한일서 2:22-24절은 이러한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임무를 “처음부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서의 저자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상기시키며, 그것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의 임무 수행의 결과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호적 거함에 믿는 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요 17:21, 23)을 보여준다.

트레빌코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요한일서의 저자가 요한복음 저술 때와 상이한 정황 속에서도 어떻게 요한복음을 해석하며 새로운 신학적 영토로 나아가는지를 상기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 그리스도인 역시 성경 말씀의 신학적 함의들을 더 깊이 캐내고 연구하며 깊은 신학적 소통을 이루어가도록 권면했다.

한편 사전 등록만 230명이 넘었던 컨퍼런스는 많은 신학도 및 목회자, 교수들이 두 시간 가까이 진지하게 강의에 참여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강의의 탁월함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의 참여자들을 고려해 미드웨스턴 신찬기 교수가 한국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등 진행상의 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트레빌코 교수는 강의와 질의 응답시간 포함 약 두 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신학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렛츠고!” LA 출발8일간 예루살렘 성지순례

40년 전통의 전문여행사가 선교회들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가격과 섬세한 일정으로 마련한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2023년 2월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엘에이에서 출발하는 이번 성지순례는 기본에 충실한 시간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감람산의 히브리 대학교 전망산, 주님의 승천지점, 주기도문교회, 십자가의 길, 골고다 성 분묘교회 목자들의 들판교회, 베들레헴 탄생교회, 헤로다움(헤롯의 요새 및 무덤), 통곡의 벽, 시온산, 시온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해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공생애기간을 상세히 돌아본다.

또한 드고아 아모스 선지자 고향, 사무엘 묘, 벤엘, 야곱의 우물, 그리스 산, 베들레헴 탄생 교회, 유대 광야 요단 계곡, 가이사라 빌립보, 가버나움, 므

깃도, 지중해, 갈멜산, 벤세메스, 아돌람 굴, 브엘세바, 갈릴리 호수 등의 믿음의 역사가 흐르는 구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순례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믿음의 유산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의 주판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던 우리에게 삶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겸손한 순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성지순례에 대한 문의는 세기여행사와 파이오니아 여행사 213) 819-5132, 213) 653-6489 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비전케어, 무보험·저소득층 한인 대상 무료 시력검사 및 백내장 수술 지원

9월 24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 무보험·저소득층 한인들 대상, 전문의 직접 검사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고정원)가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오는 9월 24일(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개최한다.

LA 사랑의 아이캠프는 눈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비전케어 미주서부의 고정원 이사장은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LA 사랑의 아이캠프’는 눈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생활에 불편이 크지만, 경제적 형편상 검진을 제

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에게 무료로 안검사를 제공한다”며 “검사가 필요한 한인들은 꼭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VCS West가 주최하고 LA 총영사관, 오픈뱅크, 강드림재단, 패밀리오피스재단 등이 후원한다. 또 조성진 안과전문의, 리사 황 안과전문의, 케빈 잉 안과전문의, 에드워드 이 안과전문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제니퍼 김 검안의가 시력 검사를 맡아줄 예정이며, LA 월서라이언스클럽과 고등학생들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모든 방문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약 및 문의 213)505-2552 **홍연아 총무**
김동욱 기자

밝고 행복한 조망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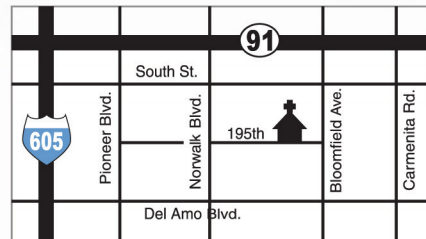
강사: 정성욱 박사

-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Ph.D (조직신학)
- 제임스 패커와 존 스토틀을 잇는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엘리스터 맥그래스의 제자
- 저서 중 '스피드조직신학'은 현재 갓피플 조직신학 부문에서 오랫동안 1위를 달리고 있음

<https://cmchome.org>

일시: 10월 7,8,9일 장소: 세리토스선교교회 본당

- 금요일 저녁 7:30 디도서 2:11-14 밝고 행복한 조망로
- 토요일 새벽 6:00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1
- 토요일 저녁 6:00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2
- 주일 1부 아침 7:45...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3
- 주일 2부 아침 11:00 ...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4



세리토스선교교회 CERRITOS MISSION CHURCH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562)402-2919

“조용기 목사 사역과 영적 유산, 전 세계로 확장시켜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던 故 영산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추모예배에서는 영목회 회장 전호운 목사(순복음강북교회) 사회로 장로회장 김천수 장로의 기도, 이장균 목사(순복음강남교회)의 성경봉독, 베데스다 찬양대의 찬양 후 이영훈 목사가 ‘영원한 분향(히브리서 11:1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서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평생 믿음을 따라 사셨다”며 “조 목사님은 절대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큰 종이셨다. 언제나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셨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서대문 시절 강단에 서기만 하면 ‘할 수 없다, 죽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백하라고 하셨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고 말할 것을 강조하셨다”며 “여의도 성전을 지을 때도 각종 어려움 속에서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조 목사님은 거룩한 꿈을 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뤄지리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며 “이를 위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그 영적 유산을 전 세계로



추모예배 모습. ©이대웅 기자

김장한 목사는 “조 목사님 마지막 장례예배에서 설교했는데, 벌써 1년이 됐다. 지금도 그립고 보고 싶다”며 “어려울 때 목사님과 같이 의논하고,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많이 도와주셨다. 좋은 것은 항상 나눠 주셨다. 목사님 따라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때 기쁘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가족 대표로 감사 인사한 조민제 회장(국민일보)은 “아버지를 잃은 제게 지난 1년은 무척 길게 느껴졌다. 허망하고 두렵기도 했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감사한 일은 ‘기도하고 있다’는 위로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이다.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보다 큰 위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배는 증경 북미총회장 이호선 목사(새서울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확장시키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몫”이라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차원의 영성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 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으로 추모사를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뜨거운 감자 ‘여성 안수’ 찬반 논리 살펴보니

장로교단 총회, 이슈로 부상

장로교단 정기총회가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일부 교단에서 ‘여성 안수’ 문제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금지하고 있는 예장 고신 같은 경우, 총회 산하 미래정책위원회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연구의 건’을 정식 발의하기도 했다.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예장 합동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1~15절, 고린도전서 14장 34~36절이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중략)... 오직 복종할 것이요”가 핵심 구절로 꼽힌다.

◆ ‘여성 전도사·교사는 놔두고 왜 목사만?’

그러나 고신 측 미래정책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교회)는 15일 본지에 “성경적으로 (여성 안수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성경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 여성 목사 뿐만 아니라 여성 전도사도, 여성 교사도 당연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 전도사와 여성 교사는 놔두고 목사만 안 된다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도 그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문제에 한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것을 전체 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초대교회에서도 여성 사역이 활발했다”고 했다. 그는 “(여성 안수 문제는) 진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고신 측 평화교회를 담임하는 한성국 목사도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는 이 구절은 여자들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단지 ‘질서를 지키면서 예언(방언)을 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예언(기도, 방언)하거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감독, 한 남편의 아내 아닌 한 아내의 남편’

반면, 서창원 목사(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얼마 전 열린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 세미나 발제문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력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성경을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는 말씀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가르치는 일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장로(감독)의 자격 중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자격 규정으로 설명한다면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직분(직책)을 맡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서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 등장하는 감독 혹은 장로의 자격”을 언급하며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라고 규정한 것을 누가 무슨 권위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며’라고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여성 안수 허용을 주장하는 자들의 글을 접할 때 단 한 사람도 이 구절을 언급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교회 지도자로 활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서 여성 안수 허용을 앞세우지만 왜 안 되는지 자격 규정에 대한 바울의 목회서신에서의 지적은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故 이장식 박사 1주기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별과 같았던 분”



故 이장식 박사

혜암(惠岩) 이장식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됐다. 혜암신학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했고 생전 한신대 명예교수였던 고인은 지난해 15일, 10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고인에 이어 혜암신학연구소 2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균진 박사(연세대 명예교수)는 15일 ‘혜암 이장식 교수님 서거 1주년 기념사’에서 “일 년 전 2021년 9월 15일 세상을 떠나신 고 혜암 이장식 교수님은 파란만장했던 한국 근대사를 품으로 사신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일제 치하에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고,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의 사상 투쟁,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에 걸친 한국전쟁,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 197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한강의 기적,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등, 실로 이장식 교수님은 한국 근대사의 산증인이라 하겠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 같은 역사적 소용돌이 속

에서 이장식 교수님은 세속의 명예를 탐하지 않으시고, 학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는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 주셨다”며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처럼 사회 활동, 정치 활동에 열심하는 일부 교수님들에 비해, 이장식 교수님은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모지와 같은 한국 신학계에서 자기 전공 영역의 학문적 기초를 세우시며, 학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충실하는 분으로 저희 후학들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한국신학대학에서 정년 은퇴하신 후 이장식 교수님은 70세가 넘은 연세에 머나먼 아프리카로 가셔서 선교예뎬을 바쳐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도 하시고 신학교육에 전념하기도 하셨다”고 했다.

김 박사는 “또 약 10년 전 혜암신학연구소 설립하셔서 한국 기독교의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의 신학자들의 만남과 친교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에큐메니칼 신학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그는 “교수님이 서거하신지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교수님은 저희 후학들에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별과 같았던 분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합동 권순웅 총회장 “총회·노회·교회는 ‘전도 본부’ 돼야”

‘살롬·부흥’ 취임사에서 전도운동 등 7가지 포부 밝혀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장에 취임한 권순웅 목사(화성 주다산교회)가 19일 총회 첫째 날 저녁 회무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7가지 포부를 밝혔다.

권순웅 총회장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미천한 종을 107회기 총회장으로 세워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저는 교회와 총회에서 사역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늘 기억했다”며 “세상에는 똑똑(똑똑하면서 게으름), 똑부(똑똑하면서 부지런함), 명부(명청하면서 부지런함), 명계(명청하면서 게으름)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은부, 은혜로 부지런히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 총회장은 “제가 총회장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권총(권순웅 총회장)’이라고 부를 텐데, 저는 섬총,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2020년에서 2021년이 되는 동안,

4,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우리 총회에서 작년 17만 명, 올해는 8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며 “코로나는 ‘묻지면 죽고 흠어지면 산다’고 했다. 하지만 교회는 모여야 한다. 역대급 치명타를 맞았지만, 교회는 뒷걸음질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많은 공격도 받고 있다.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과 다툼의 공동체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형제의 연합함을 통해 실로암 땅대의 교훈으로 자신을 살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순웅 총회장은 “이제 107회기가 맞을 올렸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믿는다. 은혜의 바람이 불 때 닦을 옷을 가져야 한다”며 “107회기 주제는 ‘살롬과 부흥’이다. 살롬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이다. 살롬과 부흥을 위해 7가지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총회장이 밝힌 7가지 공약.

1. 살롬 부흥 전도운동
총회·노회·교회는 ‘전도 본부’가 돼야 한다. 내년 1월 각 노회와 교회가 전도 일꾼



권순웅 총회장

대부흥회를 개최하고, 모든 교회가 10주간 일제히 전도하고 ‘새생명 초청 블레싱 대회’를 함께 섬길 것이다.

2. 살롬 부흥 총회 산하 조직 발전운동

총신대와 GMS(합동세계선교회), 총회교회 자립개발원 등 총회 산하 조직들이 ‘살롬 부흥’ 정신으로 발전되도록 할 것이다. 워크숍을 열어 갈등과 분리의 조직이 아니라, 살롬과 부흥의 조직으로 발전을 이루도록 섬기겠다.

3. 살롬 부흥 노회 교회 갈등 회복운동
은혜의 정신 실천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을 이루겠다. 총회 법과 규칙 규범을 기준으로 하되 화합으로 세우겠다.

4. 살롬 부흥 대민족 사회운동
복음적 평화통일운동을 실시하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 악법과 활동에 단호히 대처. 이번 총회가 끝나기 전에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제안한다. 대사회 메시지 역할도 수행하고, 기후 환경 회복운동을 시작하겠다.

5. 다음세대 목회 부흥운동

무너지는 다음세대를 위해 교사대학과 청년·청소년 토론배틀, 전국주일학교 축구리그 등을 시작하겠다. 저출산 절벽의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축복주일을 제정하고 지원할 것이다. 급변하는 목회활동에 대해 연구소를 상설기관으로 세우고 이사진을 두어 실질적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6. 목회자 은퇴보장 운동
107회기에는 106회기 실행위원회 결의를 총회 결의로 받아, 전 목회자들의 연금 가입으로 살롬 부흥목회 리더십을 전적 헌신의 생활보장에 돕도록 섬기겠다.

7. 제주수양관 건립운동
제주 수양관 부지는 건립 목적대로 사용하고, 살롬 부흥 운동으로 총회와 GMS, 제주노회, 동창회 등이 컨소시엄으로 수양관을 건축해 선교사들과 목사·장로 등의 영성 개발과 섬의 센터로 활용하겠다.

끝으로 그는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으로 섬기겠다. 어떤 금권과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며 “임원들도 이 약속에 동참할 것이다. 형제 연합 정신으로 살롬 부흥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합동, 오정호 목사 부총회장 당선

임원 선거 진행...

총회장에 권순웅 목사 추대

예장 합동 제107회 신입 목사부총회장에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가 당선됐다.

오목사는 19일 경기도 화성시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첫째 날 임원 선거에서, 807표를 받아 693표에 그친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를 제쳤다.

오목사는 당선 소감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상대 편이었던 한기승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단이 금권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준비했기를 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혁주의 정신을 살려서 정책 선거, 총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거문화를 만들기 원한다”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했다.

오목사는 “합동교단이 대한민국 교회의 수준을 높이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밀거름이 되겠다”며 “저의 혈관 속에는 칼빈의 피가 흐르고, 육한흠 목사님의 열정이 가슴에 남아 있다”고 했다.

또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에 대해서는 “교갱협의 모든 회원분들은 신실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 신입 총회장 권순웅 목사(오른쪽)와 신입 목사부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 목회를 지향하는 분들이다. 교갱협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절대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다. 돈 문제에 걸리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겠다. 혈연, 지연, 학연을 깨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총회가 되게 총회장님을 잘 보필해 섬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거 투표는 기존의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로 진행해 이전보다 다소 시간이 걸렸다. 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치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앞서, 제106회기 부총회장인 권순웅 목사는 기립한 총대들의 박사를 받으며 투표 없이 추대 형식으로 총회장에 당선됐다.

신입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임원 선거가 끝난 후 밝힌 소감에서 “예장 합동 제107회기 총회장으로 섬기게 됐다. 큰 책임감을 느

낀다”며 “‘살롬, 부흥’이라는 주제로 총회를 섬기고자 한다. 하나님, 사람, 환경과의 평화, 이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선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또 다른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진력하겠다”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단독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선거 없이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 임영식 장로(경서노회 아천제일교회) △서기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 광주서광교회) △회록서기 한기영 목사(동전주노회 전주은강교회) △부회록서기 전승덕 목사(서대구노회 설화교회) △회계 지동빈 장로(서울함동노회 강변교회)

두 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부서기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종철 목사(용천노회 큰빛교회)가 690표, 기호 2번 김한욱 목사(소래노회 새안양교회)가 810표를 받아 김한욱 목사가 당선됐다.

부회계는 기호 1번 한복용 장로(제주노회 이도교회)가 734표, 기호 2번 김화중 장로(이리노회 북일교회)가 763표를 받아 김 장로가 당선됐다.

백송교회, 찬양콘서트 ‘가을, 문을 열고’

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가 지난 17일 인천에 있는 예배당에서 ‘가을, 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찬양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이순희 목사는 첫 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또 신곡 ‘인생길 험하고 힘들어도’의 잔잔한 선율은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며, ‘빛을 발하라’ 등 신나는 박자와 경쾌한 멜로디로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목사는 3시간 30분 동안 29곡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순희 목사와 아들 성민 군이 함께 무대를 꾸몄으며, 차유미 목사와 듀엣도 펼쳤다.

이번 콘서트 역시 게스트들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세계적인 바리톤 김성훈은 ‘여정’이란 찬양으로 콘서트의 서막을 열었고,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색소폰 연주자 이만석 집사도 ‘은혜’, ‘주만 바라볼찌라’ 등을 애드립까지 선보이며 연주했다. 또 두나미스 찬양단과 김성민, 박재하 등이 출연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욱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미국 주 대다수, 종교적 자유 보호장치 불충분”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 2022년 주별 종교 자유 순위 발표

미국 종교 자유 옹호 단체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종교의 자유가 불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지난 16일 종교, 문화, 민주주의의 센터 프로젝트인 ‘미국의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보호 장치의 비율을 반영하여 각 주의 순위를 매겼다.

주 정부의 보호 장치에는 신앙인의 종교 휴일 선거 참여를 위한 부재자 투표 기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아동 예방접종 면제 및 종교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순위에는 의료 제공자가 낙태, 불임 및 피임 시술 등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반영됐다. 또한 건강 보험 플랜에 피임약을 포함하기를 거부하는 고용주에 대한 면제나, 종교인이나 신앙인 공무원 및 기업이 동성 결혼식 참여 거부 가능한지를 반영했다.

그 결과, 미시시피주는 82%의 안전장치를 보유해 가장 높은 종교 자유 점수를 받았다.

반면 뉴욕주는 안전장치가 16%만 포함되어 종교적 자유도가 가장 낮았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종교 자유에 필수적인 11개의 안전장치 중 9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재자 투표와 예방접종 요건에 대한 종교적 면제만 부족했다. 대조적으로, 뉴욕주는 2개의 안전장치만을 가졌으며, 낙태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동성 결혼식 참석을 거부할 권리만을 보장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는 종교 자유 부문에서 뉴욕과 함께 하위 3개 주에 속했고, 일리노이주는 미시시피주 다음으로 종교 자유 부문 2위에 올랐다.

조사에서 50% 이상의 안전장치를 가진 주는 50개 주 가운데 9개에 그쳤다. 여기에는 미시시피, 일리노이주 외에도 뉴멕시코, 플로리다, 워싱턴, 유타, 테네시, 메릴랜드, 아이다호, 캔자스주가 속해 있다.

대부분의 주에 있는 종교 자유 보호장치는 아동 예방 접종에 대한 종교적 면제이며, 미시시피, 메인, 캘리포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 등 5개 주만 갖고 있지 않다.

50개 주 중 40개 주는 종교적 이유로 부재



©George Bakos/ Unsplash.com

자 투표를 허용했으며, 33개 주는 고용주가 의료 보험 계획에서 직원들의 피임약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건강 보험 의무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갖고 있다.

또한 23개 주는 종교 자유 회복법을 가진 반면, 27개 주는 갖고 있지 않았다. 미시시피주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종교적 면제의 최대 범위가 시행되는 반면, 뉴햄프셔와 버몬트주는 그러한 보호가 없었다.

또 미시시피주는 동성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종교인, 공무원, 기업체에 대해 최대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30개 주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 결혼식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권리를 보호하는 20개 주는 미시시피,

일리노이, 플로리다, 유타, 메릴랜드, 코네티컷, 메인,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델라웨어, 텍사스,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햄프셔,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욕주이다.

이번 종교 자유 보고서는 몇몇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서 제기된 시기에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시술 거부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규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 종사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낙태 시술을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1972년 교육 수정헌법 제9조(Tilte IX)의 성차별의 정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지침을 발표해 신앙 기반 단체들의 신앙인 고용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상원에서는 보류 중이다.

종교 자유 옹호자들과 신앙 기반 단체들은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성문화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47명의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김유진 기자

“어린이 세계관 형성 13세까지... 제자중심 사역에 더 투자해야”



©어와나

“제자 중심의 어린이 사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불타는 강단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미국 어린이 제자훈련 단체인 어와나(Awana)의 대표인 매트 마킨스가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바나 그룹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관 형성은 13세까지 대부분 고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킨스 대표는 “세계관 형성은 고등학교 때의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마킨스 대표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어와나의 어린이 제자도 포럼을 앞두고 CP와 인터뷰했다.

이 행사에는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와나와 바나그룹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소개된다. 이밖에 변형교회 목사인 더윈 그레이, 변증가이자 학자인 레베카 매크로린, 바나그룹 CEO 데이빗 킨나만, 그로브시티대학 교수 칼 트루먼, 신학자 레이 오트런드 등을 비롯한 많은 연사들이 참석한다.

마킨스 대표는 “만약 우리가 18세를 데드라인으로 본다면 잘못된 기한”이라며 “18세가 아니라 13세다. 바나그룹은 세계관 형성이 그때까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정말로 13세 어린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킨스 대표가 발견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어린이 가운데 39%가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 외에 적어도 한 명이 교회에 있다고 보고했다는 점이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아이들은 교회에 (자신을) 돌보는 성인이 한 명 이상 있다고 보고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성경 참여’, ‘교회 섬기기’, ‘교회 소속감’과 같은 문제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주는 요점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돌보는 어른들이 있고 그러한 문화가 존재한다면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는 십대가 되고, 학생이 되고, 영속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 성인이 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칼 렌츠 목사, 뉴욕 힐송교회서 해고된 지 2년 만에 활동 재개

“가족 평화롭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감사”

성추행 및 리더십 스캔들로 뉴욕 힐송교회 담임직에서 해고된 칼 렌츠(Carl Lentz) 목사가 약 2년간의 침묵 끝에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칼 렌츠와 아내인 로라 렌츠(Laura Lentz)는 14일 인스타그램에 2시간 간격으로 공유한 메시지에서 공적인 생활로 복귀할 것을 밝혔다.

로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다. 매우 도전이었고 지옥과 같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 지난 22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는 이 결혼과 자녀들을 위한 노력을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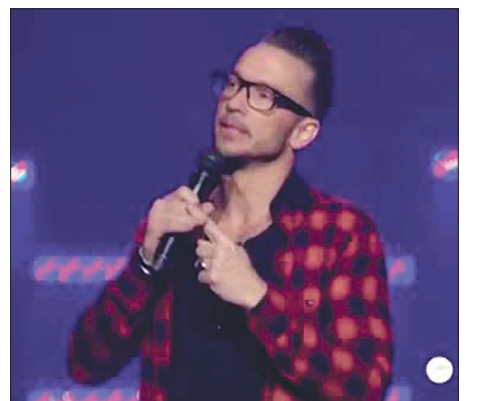
또 “내가 했던 행동 중에 하지 말았어야

했거나 해서는 안 됐던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괜찮다.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나누길 원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 남편과 그가 가진 책임감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는 스스로 낮추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외부적으로 매우 조용하게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가정에 집중해 왔다”고 남겼다.

2시간 전 렌츠 목사는 “가족들이 이제 평화롭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렌츠 목사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문



칼 렌츠 목사. ©인스타그램

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감사하다.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 친구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영원히 감사하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연방법에 동성혼 성문화 시도... 전망은

공화당 일각서도 지지 표명

미국에서 400명 이상의 공화당원이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를 성문화하는 법안이 연방법으로 통과되도록 상원에 촉구하는 서한을 지지한 가운데,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들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투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의 오하이오주 톱 포트만(Rob Portman) 상원의원과 민주당 테미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이 11월 총선까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47명의 공화당원과 모든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아 7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성명은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400명 이상의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후 나온 것이다.

하원 민주당원은 지난 6월 24일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이 법안을 도입했다. 결혼존중법은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에서 확립된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WP에 따르면, 서명자 중에는 펜실베이니아의 공화당 상원 지명자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박사, 콜로라도의 공화당 상원 지명자 조 오데아(Joe O’Dea) 및 매사추세츠주지사 찰리 베이커(Charlie Baker)도



남자동성애자 커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명의 전 공화당 의원들 24명도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자들은 “공화당원이자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가족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계성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시민결합은 자유와 행복 추구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 자유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등록된 공화당원의 대다수를 포함해 미국인의 71%와 함께 모든 미국인의 결혼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명자들은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면 가족을 형성하고, 결혼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헌신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모금, 과거 투표 형태와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의 디렉스 모델은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할 확률을 71%로 보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의 지지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표결을 위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파이프서티에이트의 디렉스 모델은 또한 민주당원이 미국 상원의 다수를 유지할 가능성을 71%로 보고 있다. 민주당 과반수가 51대 4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하원은 현 의회보다 새로운 의회에서 법안을 더 많이 지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진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승화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영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산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t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의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OE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빙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美, 2055년까지 기독교인 43% 무종교인은 46%”

전쟁이나 경제 불황과 같은 제한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이 30세 이전 신앙을 포기하는 속도가 현재를 넘어설 경우, 빠르면 2045년까지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분석결과를 인용해 기독교인들이 무종교인들보다 수적으로 열세에 처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퓨-템플턴 세계종교미래(Pew-Templeton Global Religious Futur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전환 시나리오에서 처음으로 미국인의 종교구성을 예측한 퓨리서치센터의 작업을 기반으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종교적 변화와 그것이 전 세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퓨리서치는 다가올 반세기 동안 미국의 종교지형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가능성 중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앙을 포기한 청년 기독교인의 영향은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차지한다.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양한 정도의 비종교성을 반영하지만 모든 전환이 2020년 완전히 중단됐다는 역사실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무종교인 순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에서 강조된 데이터는 “기독교가 아닌 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더 결속된 종교적 소속으로 남아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비종교적 정체성이 지속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4대 주요 모델 중 3가지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경우, 미국 내 기독교 신자 숫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연구원은 “30세 이전 (기독교인의) 전환 속도가 중단 없이 예측 기간 내내 빨라진다면 2045년까지 기독교인이 더 이상 다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델에서 무종교는 2055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신앙표현이 될 것이며 인구의 약 46%가 무교라고 주장할 것이다. 기독교인은 인구의 43%만 차지하게 된다. 2070년까지 미국인의 52%가 비종교인이 될 것이며 35%만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2020년 퓨리서치센터는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인의 약 64%가 기독교인이라고 추정했다. 무종교인은 미국 인구의 30%를 차지했으며, 유대인,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를 포함한 타종교는 약 6%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청년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무종교적 성향은 종교 전환 뒤 지속적인 가속도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종교를 유지하고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인을 키우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의 자기 영속적인 핵심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4가지 모델 중 연구원들이 선택한 두 번째 모델에 따르면, 30세 이전 기독교 이탈 속도가 처음에는 빨라졌다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기독교인은 2050년까지 다수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이때 기독교인은 미국 인구의 47%에 해당할 것이며 비종교인은 42%가 될 것이다. 2070년에는 비종교인이 48%를 차지하며 다수가 될 것이며 이 시나리오에서 기독교인은 미국인의 39%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 학부모 권리 단체, 민주 상원 50명·공화 6명에 ‘낙제점’

맘스포아메리카 2022년 의회 성적표 공개

미국의 학부모 권리 단체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의회 성적표를 공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학부모 권리 옹호 단체 ‘맘스포아메리카(Moms for America)’는 14일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들에게 가장 중요한 12가지 핵심 쟁점을 토대로 등급을 매긴 의회 성적표를 공개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은 535명이며, 상원 100석(민주 50, 공화 50), 하원 435석(민주 222, 공화 212)이다.

이 단체로부터 A+등급을 받은 공화당 하원 의원은 43명이며, 47명은 A등급, 79명은 A-등급을 받았다. 이는 212석 중 169석으로 약 80%에 해당한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A+등급은 9명, 12명은 A 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의석의 42%를 차지했다.

반면 상원 의석에서 민주당은 50명 전원, 공화당은 6명이 F 등급을 받았으며, 하원은 민주당 3명, 공화당 3명이 낙제점을 받았다.

F 등급을 받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코니 쿤웨이, 아담 켄징거,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상원은 로이 블런트, 셸리 무어 캐피토, 수잔 콜린스, 린지 그레이엄, 미치 맥코널,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유일했다.

김벌리 플래처 맘스포아메리카 회장은 성명에서 “엄마들은 중요한 투표권을 대표하며,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교육, 식단, 건강 관리 및 안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의학적 의무에서 마스크 의무, 급진적인 비판적 인종 이론부터 성 평등, 무기 소지 권리부터 학교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2022년 성적표는 두 정당 모두 미국 엄마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지가 부족함을 발견한다”고 했다.



미국 학부모 권리 단체 ‘맘스포아메리카(Moms For America)’ 회장이자 설립자인 킴벌리 프레처가 이달 1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플레처는 하원 의원들 간의 큰 등급 차이에 대해 “간단한 답은 미합중국 헌법”이라며 “A 등급을 받은 이들은 손을 들어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 헌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등급을 결정한 투표에는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낙태 권리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한 ‘여성 건강 보호법(Women’s Health Protection Act)’과 LGBT에 대한 차별 방지를 성문화한 ‘평등법(Equality Act)’이 대표적인 예다.

이 단체는 ‘2개 이상의 성별법’으로 규정된 ‘LGBTQI+ 데이터 포함법(LG-BTQI+ Data Inclusion Act)’을 지지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투표를 보류할 것을 독려했다.

이 밖에도 총기 규제 법안, 선거에 대한 연방 감독 강화 법안, 워싱턴 D.C.에 주정부 지위 부여 법안, 우크라이나 구호 지원책과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및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성적표에 반영했다.

맘스포아메리카는 선거 주기가 돌아오는 2년마다 의회 성적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수십만 명의 엄마들에게 의회 성적표를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인도 대법 “8개 주서 기독교인 공격 사실 규명” 당국에 명령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대법원. ©인도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

인도 대법원이 8개 주에서 보고된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라고 인도 당국에 명령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비하르,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오디샤,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하리아나에서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1일 열린 공판에서 다나나야 Y. 찬드라추드 판사와 히마 코히 판사는 내무부에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이번 법원 명령은 2021년 500회 이상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와 함께, 지난 3월 피터 마차도 방갈로 대주교, 국가연대포럼(NSF), 연합기독교포럼(UCF), 인도 복음주의 펠로십(EFI)이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단체들은 인도 경찰을 상대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당국은 대법원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선부르고 이기적인 사실과 기사 및 보고서에 근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국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사건에 대해 어떤 대응

을 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청문회는 올해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린젠 발렌 오픈도어스 대변인은 “인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정부가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추가 검증 명령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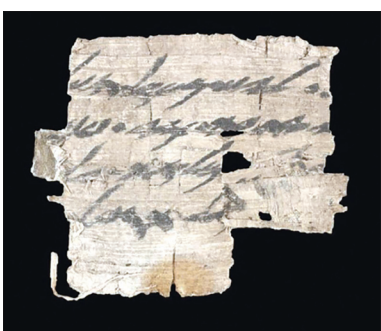
또 “당국이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한 내에 제공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하다”며 “이는 이러한 공격이 소수의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더 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인도는 수년간 바라티야 자나타당의 집권 하에서 힌두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인도 인구 중 81%가 힌두교도이며, 이슬람교도 12.9%, 시크교도 1.9%, 불교나 자이나교 또는 기타 종교는 1% 미만이다. 기독교인은 2.4%로 68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 중 인도는 10위이며,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의 주된 가해자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다 밝혀졌다.

김유진 기자

2천여년 전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희귀 파피루스 사본 기증돼



이스마엘 파피루스. ©Shai Halevi,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2천7백년 된 희귀한 파피루스 조각을 수십년간 소유하고 있던 한 미국인 가정이 이스라엘 고대유물국 (Israel Antiquities Authority)을 통해 기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로 1.5인치 세로 2인치 사이즈의 작은 조각에는 구약 왕정 시대 고대 히브리어로 ‘이스마엘에게 보내라’는 단어로 쓰여진 네 줄 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단어는 불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이스라엘 선교 중 한 여성이 선물 받았거나 발굴에 참여한 후 기념품으로 해당 파피루스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CP는 전했다.

IAA 도난방지부서의 이탄 클라인은 제1성전 시대의 고대 히브리문자로 쓰여진 조각을 언급하면서 “이 파피루스는 독특하고 매우 희귀하다”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IAA는 “수세기 동안 유대 사막의 동굴에 묻혀 있었고 그곳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보존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제1성전 시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멸망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스라엘 타임즈(The Times of Israel)는 클라인이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브루스 주커만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파피루스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커만 교수는 2018년 6월 사망할 때까지 서사시 작가 아다 야르데니와 연락을 취했다. 최초의 성전 시대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책을 쓰고 있던 그는 클라인이 몬테나에서 파피루스의 미국인 소유자 아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클라인은 이 조각이 1965년 미국 기독교 선교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몬테나 주민이 구입하거나 선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이 사본의 주인은 쿠파란 주변 발굴에 참여하고 사해 두루마리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만났다고 한다.

파피루스는 수십 년 간 몬테나 주의 자택 벽에 걸려 있었다고 CP는 전했다.

클라인은 익명을 요구한 파피루스 소유자 아들에게 연락해 IAA의 특별 손님이 파피루스를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도록 초대했다. 몬테나주에 거주하는 그의 방문 기간 동안, 클라인과 동료들은 파피루스를 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사본 소유자 아들은 조각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독교적 가치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이스라엘에 기증했다고 클라인은 말했다.

사본에 적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1성전 시대 살았던 사람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전했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고등부예배 오전 8:40

대흥장로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돌로스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은혜로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토렌스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대 오후 2: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다우니제일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함께 걷는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갯스월연합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0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베델 선교대회를 다녀오다”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보석”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9박 10일) 흑해의 동쪽 나라 조지아(수도:트빌리시)에서 참으로 뜻깊고 은혜로운 선교사들의 초청잔치가 열렸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남가주 알바인 베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본교회에서 파송 또는 후원하는 각국의 선교사들을 부부별로 모두 조지아로 초청하였다. 16가정의 32명 선교사가 각자의 사역지에서 교회가 제공해 준 비행기 편으로 트빌리시 최고의 호텔인 빌트모어 호텔로 모였다. 이 대회의 목적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사역에 전념하느라 다소 지치고 고단한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쉬고서로의 교제를 통해 좋은 선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자자 함이었다.

지아, 아프리카 우간다, 태국, 캄보디아, 멕시코(2가정), 키르키즈스탄, 온두라스, 파라과이, 중국(북한 탈북자), 미국(북한 인권), 세네갈, 미국(GYMA, 의료),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하비스트 커넥션(백상철 장로) 등 사역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선교사들이 서로 놀랐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필자는 이 모습을 보며 한 교회에서 일구어낸 선교 동역과 네트워크의 열매가 이렇게 엄청난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담임 김한요목사는 선교적 비전이 확실한 선교적 목회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가 말한 “Beyond 10 years”가 기대되었다. 베델교회는 이 선교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세계선교네트워크 동역을 선교지와 지역교회간에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던 선교의 꿈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여했던 선교사들의 밝은 모습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는 올해 초부터 함께 참여하여 선교사들을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40명의 봉사자를 받고 신청 마감은 하였다. 3월부터 봉사자들의 준비 모임을 시작하여 매주 한 번씩 모여 준비 기도회와 담당 파트별로의 준비하였다. 또한 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험스바 새벽기도회를 통해 매주 나라별로 선교사들이 줌 영상으로 참여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전 교우들이 연합기도회로 이 대회를 준비하였다. 한 교회가 마련하여 시행하기에는 재정적으로도 인적자원으로도 어려운 시도였다. 그러나 오로지 한가지 목적인 선교사들의 ‘쉼’과 ‘회복’만을 바라며 교회는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회의 주제를 “Go together!”로 하여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꿈꾸며 진행되었다. 베델의 봉사자들은 선교사들보다 며칠 앞서 도착하여 장소의 대화장을 꾸미고, 진행을 위한 음향, 영상, 찬양팀, 안내와 숙소 담당팀 등의 준비를 갖추었다. 조지아에 파송된 김현수 선교사 부부의 수고가 컸다. 3박 4일간의 트빌리시 호텔에서의 ‘베델 선교대회’를 통해 각지에서 참여한 선교사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친교 때마다 나누는 교제로 짧은 시간에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16개 선교지의 선교 소식 발표 시간이 주어져 각자의 사역 보고를 할 때는 정말로 감동과 은혜 그 자체였다. 나라별로 보면 터키(3가정), 조

3500프랑을 연봉으로 받는 하급 공무원 ‘랑탱’은 사무실 상관 덕에 유회에서 본 아가씨를 만난 후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얼마 전에 사망한 세무 공무원의 딸입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파리로 이사를 와서 관장은 혼처를 구할 요량으로 몇몇 부르주아 가문들을 자주 방문했던 티였습니니다. 이런 모녀에게 랑탱은 그래도 관장은 신랑감이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랑탱은 야유회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무척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상냥했으며 남편도 최대한 돌보고 적당한 애교도 부립니다. 게다가 그녀는 알뜰하게 살림을 살며 남편을 배려합니다. 나무랄 데 없는 아내였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고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랑탱이 아내에게 모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 관하여 꼭 두 가지 못마땅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극장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인조보석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랑탱의 아내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입장권을 구해 남편과 극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가면서 몸치장에 대한 습관이 생기고 보석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랑탱은 극장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가짜 보석을 모으는 아내의 모습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진짜 보석을 살 능력이 없으면 타고난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장식된 자기 자신을 보여 주는 법이 따로 있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보 왜 그러세요? 난 이것이 좋은데요. 당신이 옳아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군요. 진짜 보석이라면 더 좋았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밤, 오페라 극장에 간 그녀는 와들와들 떨면서 돌아와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랑탱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했기에 아내가 쓰던 가구 옷가지까지를 그대로 두고 그는 계속 슬퍼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아내의 보석들은 보기 싫었습니다. 아내의 보석들을 보면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의 애뜻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 재정관리가 엉망이 되어 돈이 궁했고, 아내의 모조보석을 팔기로 하고 보석상에 갑니다. 랑탱은 이렇게라도 돈을 마련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부끄러웠고, 보석이 모조라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석상은 그 모조 보석들이 모두 진짜라고 말합니다. 랑탱은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바보! 오, 저 친구 정말 바보 아냐? 저 사람 말이 진짜라면 좋겠지, 진짜 보석이란 가짜 보석도 구분하지 못하는 보석상이네!” 그리고 다른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역시나 그 모조 보석들을 진짜로 판정합니다.

랑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던 보석들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보석이 진짜라면 아내가 가짜였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랑탱은 아내를 순수하고 착한 여자로 보았지만 그녀는 의도했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진짜 보석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랑탱은 충격에 빠져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랑탱은 ‘거짓’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며 배신감과 절망감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석가게로 찾아가니 처음 보석가게에 들어섰을 때 랑탱은 모조보석을 팔아야 하는 자신의 궁핍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아내의 외도를 안 후의 랑탱이 보석가게를 들어서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은 또 다른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점원들과 보석상은 지나치게 명량한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랑탱은 보석들을 팔아 받는 돈이 좋습니다. 보석을 돈으로 바꾸면서 그는 점점 더 기세 등등 해지고 자신만만해집니다. 심지어 보석상은 그에게 “이것

들의 입자였던 분은 저축한 돈을 몽땅 보석에 투자했나 봅니다.”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랑탱은 진지하게 “돈을 모으는 법 이 방법도 괜찮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돈이 많아진 랑탱은 기분이 너무 날아갈 듯합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비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블로뉴 숲을 한 바퀴 돕니다. 마차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부자다! 나는 20만 프랑을 가진 부자다!’라고 외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직장으로 가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제는 아내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랑탱은 없습니다. 랑탱은 흥청거리며 삽니다. 랑탱은 정숙한 여자를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했지만 까다로운 여자여서 그를 괴롭혔다’며 소설은 끝납니다.

이상은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보석>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모파상은 다양한 인간들의 허상과 위선을 재치와 섬세함으로 묘사하는 자연주의 작가입니다. 모파상의 발군의 인물과 풍경 묘사 그리고 섬세한 인간 심리묘사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의 명료한 문체는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합니다.

보석들을 팔아 마련한 큰돈을 즐기는 랑탱의 모습은 맘몬에 탐닉하는 현대인의 비극을 보여 줍니다. 재물에 몰입된 랑탱의 모습은 보석을 모으며 비밀스런 쾌락을 즐겼던 아내의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overlap) 되어 인간의 도덕성과 단정함의 허상을 질타합니다. 우리에게도 랑탱의 아내와 같은 발칙함과 랑탱의 속물근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랑탱은 가짜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모조 보석들이 진짜임을 알 때 아내의 삶이 가짜였음을 알게 되지만 그 가짜 때문에 랑탱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때문에 랑탱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거듭되는 소설은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을 비웃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라고 외쳤던 전도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소설입니다. 지금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사람과 재물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참 지혜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Tel: 1508-826-5145.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Tel: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회복을 위한 간구

시편 6: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1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시편 6편은 참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일곱편 정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애절한 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6편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해서 범죄케 만듭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도 죄 값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게 하다가 죽으면 그 죄 값으로 인해 음부에 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며 저희가 다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속에 의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죄 값으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마귀가 계획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 예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훈련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기 위한 목동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큰 기대감으로 다윗을 도와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도록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와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시편 32:1-6에 보면 "허물의 사람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행위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 자기가 말라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고백하며 애통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속에 적혀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은혜보답에 힘써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보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날카롭게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며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는 용서 받았지만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타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시6:2-3)"와 같은 표현한 것은 그의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던져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까 진심으로 뼈가 떨리도록 영혼이 벌

벌 떨어 회개하는 진지한 회개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다주고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용서를 하실 때까지 그 사람의 죄를 심판 보류하는 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이 후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혈만이 아담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실 구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 받지 못하고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지옥에 들어갈 흰 보좌 심판을 받을 대기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대로 주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7절의 '내 모든 대적'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 교만함에 밧세바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 아까지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으며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도 막아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지음으로 어둠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흔히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그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8절은 죄를 한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저주하며 미워하면서 그 죄가 온전히 용서받지도록 단식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영감적인 응답이 "아!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생각될 때에 다시금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어 흠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시6:9-10)"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미혹되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나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괴롭혔던 마귀와 그 앞잡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고나니까 다윗은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듯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고 여기시면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무엇보다 죄를 경계하며 죄를 짓지 말 것이며 죄를 짓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복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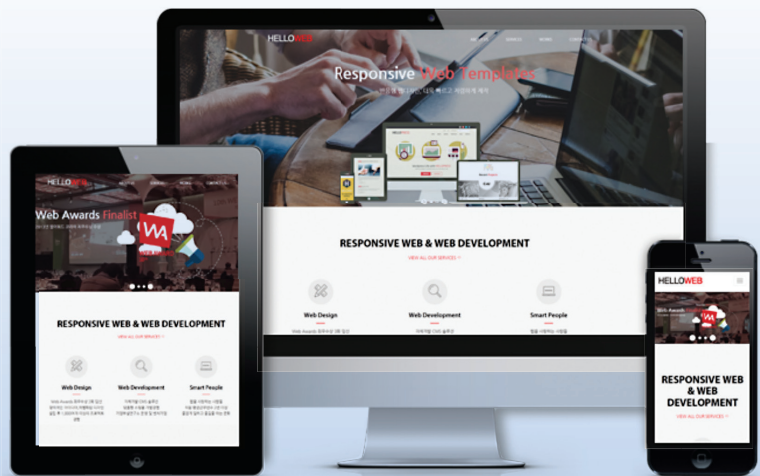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인식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식(認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인식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식(意識)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인식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식이란 말이 어려우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깨달음은 이해를 의미하면서 이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입니다. 깨달음이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란 실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모든 것이 관련을 맺고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

달음이란 각성한다는 뜻입니다. 각성(覺醒)이란 깨닫는 것이며,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방문하실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인식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출 4:2)고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팡이입니다”(출 4:2)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다시 잡았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출 4:3-4). 바로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출 4:20).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인식하는 순간,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식은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수 1:5-6상).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창 39:2).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인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

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와 치유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깨우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생명이 여인의 몸 안에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을 인식하십시오. 그 능력이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식의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인식하며 세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식의 비밀은 칭찬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소유한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잘한 것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잘차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식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7-② 메타버스 시대 교육의 변화

전 세계 IT 인재의 산실 전문 교육기관인 프랑스 교육기관 <에폴 42>는 3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감사, 교재, 그리고 학비입니다. 2013년 이동통신사를 경영하는 자비에 니엘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입니다.

2021년 한국판 ‘에폴42’로 불리는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인재 15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교육 과정인데요. 프랑스 정보기술(IT) 교육기관인 ‘에폴 42’를 벤치마킹한 학교입니다. AI 사관학교는 2020년 지난해 총 960시간 교육을 수료한 155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했는데요. 이번 2021년 2기 교육생들은 수준별 커리큘럼, 실무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습했고요. 더욱 촘촘한 교육 과정으로 양성되었습니다.

이제 2세대 이후 알파 세대는 대학에 등록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X 세대 그리고 M 세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인재를 만드

는 미래의 교육>, 김경희, 저자는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의 교육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자는 창조적 인재가 나라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유와 기회의 등불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존 애덤스(John Adams)와 에비게일 애덤스(Abigail Adams, 여성), 머시 오티스 워런(Mercy Otis Warren, 여성)을 포함한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불리는 ‘혁신가들(Innovators)’ 덕분이다.”

저자는 그냥 창조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바깥적인 정신으로 아름답게 할 창조적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MZ 세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게임이 접목되기도 하였습니다. 10년 전에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즉 게임과 교육 학습을 접목했

데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를 잘만 사용하면 재미를 통해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원격교육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학교는 수업 시간에 로블록스에 들어가 신학기 시대를 재현하며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은 교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MZ 세대 회사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할까요?

2021년 입사한 네이버의 신입사원들은 출근 첫날 출근은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이버는 2020년과 2021년 신입 입사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모두 <제페토>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춘천에 위치한 연수원에 머물며 교육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광주 파트너 스퀘어, 일본 라인 사옥 등을 방문하며, 오프라인으로 체험 및 토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리엔

테이션 기간 동안 신입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경영지원 직군 등 191명은 제페토 세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거기서 소통하고 미션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입 사원들이 회사에 방문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 월드를 <제페토>에 만들었습니다.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 저자는 현대 모비스와 LG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 안에서 교육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 MZ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교육도 점차 메타버스화 될 겁니다. (끝)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청빙!

캘리포니아 부에나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 여자전도사, 찬양대 파트타임 드럼 연주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1. 자격요건
 - a.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
 - b. 공인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
 - c.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2. 담당 사역
 - a. 교구 담당 및 교회 전반의 사역
3.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배경, 신앙간증, 은사, 장단점, 사역철학, 가족소개 등)
 - c.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 d. 추천서 2부
 - e. 최근 6개월 내 본인 설교 동영상 혹은 링크 2개

■ 파트타임 찬양대 드럼 연주자

1. 사역 일정

주일 예배: 1부(7:30), 2부(9:30), 3부(11:30)의 예배 반주(협의 가능)
 금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예배 반주
2. 제출 서류
 - a. 자기소개서
 - b. 신앙고백서

■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 여자전도사

1. 자격요건
 - a. 정규 신학을 마친 분
 - b.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 c. 교구 및 심방의 5년 이상 사역 경험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은사, 사역철학, 심방 및 교구 사역 경험, 앞으로의 사역 각오, 가족소개)
 - c. 최종학력 증명서

<서류 제출>

kogh@thanksgivingchurch.com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보내주시고, 서류 접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청빙 절차 면접은 지원 마감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마감은 2022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

교회 웹사이트: www.Thanksgivingchurch.com
 교회 주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담당자: 고귀한 목사 (714-521-0991)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진짜여야 한다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 아니, 영적인 영향력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밝힌 연예인들 가운데 사건 사고를 일으켜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건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음주 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인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유명인 혹은 연예인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불안해하거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크리스천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들의 잘못일까요? 제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파악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더 주목하고, 선전하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잘못 일까요? 결국, 본질은 크리스천이 다 똑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브라질 출신의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 해 연봉이 한국 돈으로 3000억을 받는 선수입니다. 연봉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유명한 선수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2016년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의 강한 공격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한 뒤 선수 생활을 포기할 정도의 위기를 겪었으나, 적극적으로 재활을 거쳐 선수생활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진짜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다른 남미 사람들이 그렇듯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은혜 체험을 하고 개신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가 공석에서 말하기를 개신교에는 진정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개신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모범적으로 삽니다. 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원래,

남미 출신 축구 선수들은 선수생활이 짧다고 합니다. 그들이 워낙 술과 마약으로 가득한 파티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이마르 선수는 예수님을 만난 뒤 그런 생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크리스천 축구선수로도 유명합니다. 간혹 그가 100% JESUS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헤드밴드를 하고 경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못 말리는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혹은 영광을 가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진짜여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말과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까지도 그래야 합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진짜여야 합니다.

기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2)



김 종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말할 때,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은 두 민족을 선택하셨다. 유대인과 한민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민족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는가?

이를 위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성령강림 대 부흥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은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동일한 사건이었다. 오순절 성령세례의 특징 중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의 제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평양 대부흥이 이런 놀라운 회개의 사건이었다.

사무엘 마켓 선교사 증언에 의하면, 평양은 기생이 가장 많아 음란한 곳이고 폭력배들이 들끓는 타락한 도시였다. 그래서 그는 평양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선교부에 보고한다. 그런데 성령임재를 경험한 평양시는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흐느끼는 모습이 초상집과 같

았다 한다. 기생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온순해지기 시작했다. 주일이면 성수주일을 지키기 위해 시내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았다. 평양의 거상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상인조차 팔물건을 공급받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뉴욕트리뷴은 "지금 기독교가 조선의 품격을 바꿔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일 아침이면 평양시 280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한다. 장대현 교회 출신 성도의 말에 의하면, 당시 복음을 듣고 전도 받아 장대현교회를 출석했던 성도의 수가 1 천명이 넘었다 한다. 이 증언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당시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평양을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칭한 것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닌 복음전도를 위해 필수적 사건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복음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초기복음이 유대인사회에서 이방인사회로 전해지기 위해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세례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라면, 이제 복음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지나 땅 끝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해지기 위해선 평양 대부흥의 성령세례 사건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다.

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흘러간다. 그리고 유럽으

로 전해졌고, 특히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옮겨졌다. 영국 프리머스 항을 출발한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프리머스 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다. 미국인들은 조상들의 일을 기리기 위해 프리머스항 근처에 큰 기념비(National Monument to the Forefathers)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한 여성입상과 그 입상을 받들고 있으며 동서남북을 향한 네개의 좌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입상 발치에 '신앙(Faith)'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좌상의 발치에 교육(Education), 자유(Liberty), 도덕(Morality), 법(Law)이란 글귀가 쓰여있다.

미국 최초 이민자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신앙을 기초로 미국을 건국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미국의 건국이념은 점차 세속화되었다. 16 대 미국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를 새롭게 하길 원했다. 링컨대통령은 성경에서 비롯된 인권사상에 맞지 않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마음은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문에 잘 나타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링컨대통령은 미국남북전쟁이 끝나기 전 1865년 암살당하고 만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 링컨대통령이 암살 당한 후 1년 뒤, 1866년 최초로 중국말 성경이 조선에 전해졌다. 미국상선 제너럴 셔호먼호에 통역관으로 승선하여 평양에 입항한 토마스선교사(Robert J. Thomas)는 제대로 선교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순교 당했지만, 그가 전달한 중국말 성경은 능력을 발휘했다.

'야소(예수의 조선말)를 믿으라'고 외치며 박춘권에게 건네진 중국말 성경은 그 곁에서

순교현장을 지켜보던 소년 최치량에 의해 영문주사(營門主事) 박영식에게 전달된다. 박영식은 성경을 받아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했는데 박영식이 훗날 벽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경영했는데 미국 북장로교회 평양 선교사로 부임한 사무엘 마켓이 그곳에 우연히 묵으면서 그곳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 '닐다리골교회'를 개척한다.

한민족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조선땅에 전해진 성경과 기독교서적을 읽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 민주주의의 3대 기본사상 '개인인권존중사상', '자유사상', '만민평등사상'을 깨닫는다.

한성감옥에서 1903년 '신학월보'에 기고한 그의 글은 다음과 같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달려나가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럼으로 교화로써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順便)하고 순리된 바로다..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오." 훗날 프린스턴에 유학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3대 기본사상을 기초로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이승만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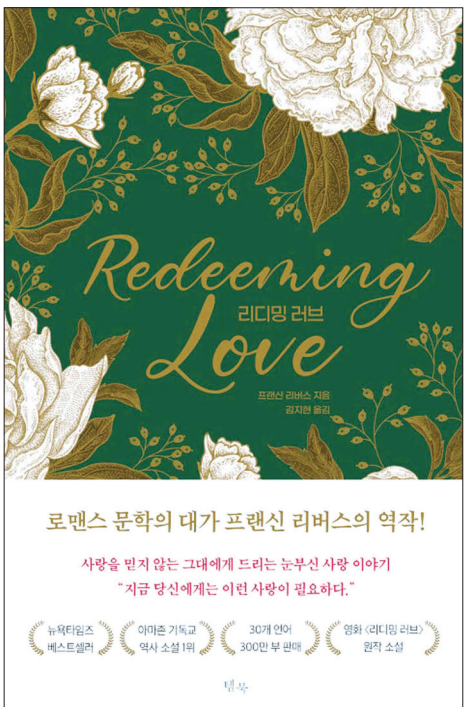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213.378.8530/213.674.7476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지금은 만나기 힘든 그 사랑

삶이란, 판사의 판결문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리딩 러브
프랜신 리버스 | 김지현 역
템북 | 864쪽

사랑을 믿지 않는
그대에게 드리는
눈부신 사랑 이야기

역지사지와 배려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 다른 자아가 만나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일은 마냥 낭만적이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감정이기때 처음의 사랑으로 '결혼'은 할 수는 있지만 '결혼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 생활이 되기 위해 서로의 자아가 충돌하고 고민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감내할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결혼은 생활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역지사지와 배려의 덕도 덩어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일일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오래참음과 끈기를 요합니다.

똑같은 태도로 자녀를 대해도, 어제는 좋아했다가도 오늘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부모의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화뇌동,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논리가 통하다가도 어떨 땐 무논리와 궤변으로 역지를 보입니다.

말을 모를 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해 화를 내고, 말을 알 때는 부모의 머리 위에서 언어유희로 농락하기도 합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다가도, 비열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글에 두면 동물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을 인격체를 지닌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그 모든 합리와 불합리, 논리와 비논리, 애교와 생떼를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건 '사람을 키우는 일은 사랑을 키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람을 키우는 높은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말입니다.

이 책 <리딩 러브>은 성경 호세아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골드러시가 한창인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합니다.

8살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아 팔려나간 사라라는 이름도 앤젤로 바뀌고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녀로 삽니다. 그러다 스물세 살에 세 살 많은 미가엘 호세이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 책은 호세아서를 그대로 1800년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건, 진행 과정과 결말이 호세아서와 똑같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예상한 그대로, 여자 주인공은 일탈하고 남자 주인공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책을 읽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궁금함입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책장을 넘기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분명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구성이나 심리 묘사, 대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상투적이고 소위 오글거리기까지 합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와 '철수는 사랑한다. 영희를'은 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밋밋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사랑한다. 영희를'은 궁금해집니다. 철수가 과연 누구

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중에야 대상이 영희라는 걸 알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문장을 비트니, 같은 내용이라도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호세아서를 그대로 이식했다는 예측 가능한 내용을 빌려왔으면 구성이라고 비틀어 재미라도 줘야 하는데,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흠려 치기 좋은 불이죠.

여기에 다소 실소가 나오는 단점은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성경 인물들 이름과 같다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의 원래 이름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죠. 남자 주인공은 너무도 노골적인 호세아. 조연들의 이름도 바울, 미리암, 스테판, 누가... 읽으면서 그렇게 작명 실력이 없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읽힌다'는 점입니다. 864쪽의 두꺼운 책임에도 읽혔습니다. 예측 가능한 내용임에도, 다음 내용이 궁금해 읽을 짧게 갖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읽힐 수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 너무 현실과 괴리된 고답적이고 환상의 사랑입니다. 떠나가도 받아주고 멸시해도 품어주는 이 답답한 사랑이 이 세상에는 어머니 외에는 없기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았습니다.

떠나가는 여자 주인공에게 '어서 돌아가라'고 남자 주인공 대신 애원하게 되고, 남자 주인공에게는 '어서 저 여자를 되찾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라'고 응원하게 합니다. 그 귀리한다는 건 이런 사랑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부러워한다는 뜻도 됩니다.

또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 묘사가 800쪽 넘게 전개되다 보니 '사랑'의 '사'와 '랑' 사이 여러 감정의 진폭을 세밀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 그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삶이란 판사의 판결문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정을 하고, 하나의 표현을 해도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만약 300쪽 내외로 그쳤으면 '뻔하다'로 끝났을 겁니다. 800여 쪽으로 늘리니 어떤 이에게 지루하다 할 수 있겠지만, 진한 사랑을 잘 담아내는 분량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겠다는 이입이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원형으로 지금도 내 삶에 호세아가 되어 사랑해 주는, 그것은 나도 누군가의 호세아가 되어 사랑을 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는 설교와 강론보다, 소설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더 절절해지고 간절하게 와닿습니다. 소설의 힘이고 이 책의 힘입니다.

이성구(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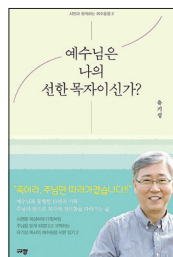
영화화된 <리딩 러브> 트레일러.

[9월, 작가들의 말말말③]

◆유기성 -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걸까? 쉽게 말하면 죽어라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줄이고 길이고 진리이다. 죽어라 목자만 따라다니며 사는 것이다. 항상 목자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면 양은 어느덧 푸른 풀밭

에 있고, 쉼 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라며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느껴지는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미케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데도 전혀 느껴지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다.

양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 때문에 편히 자는 것이 아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니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서 자는 것이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아무리 초장이 푸르고 잔잔한 시냇가여도 양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해결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

둥 치게 된다.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이다. 예수님이 내 목자임을 믿으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양이 할 일은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한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하우스 오브 드래곤> &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3)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예전만 못한 이유

대서사시 양식에 담긴 성경 서사와 이교주의 서사
대서사시 양식 영화 1960년대까지 성경 중심 제작
1970년대 <슈퍼맨>과 <스타워즈> 이후 히어로로
PC 추구 각본·연출가들, 대서사시 고유 매력 상실

◆대서사시와 성경: 성경 서사를 담은 대서사시 양식 영화의 전성기

대서사시(epic)는 주로 오래 전 신화 시대나 고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잔혹한 운명과 환경에 맞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구에서 오랜 세월 대서사시의 원형이자 전형으로 인식된 작품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였다. 주전 8세기까지 고대 그리스 신화를 집대성한 이 두 작품은 이후 서구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서사시에 영감을 주었다.

말게는 11세기에 쓰여진 <롤랑의 노래>부터 가깝게는 <반지의 제왕>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온 오늘날의 판타지 장르문학과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마블과 DC의 히어로 영화들까지, 서구에서 영웅들의 고난과 성장, 그리고 무훈을 다룬 서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할리우드는 일찌감치 검증된 이 대서사시 양식이 지닌 상업적 가능성과 매력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호메로스의 신화적 서사시부터 근대에 나온 각종 희곡과 소설,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잘 만들어진 영웅담의 매력을 거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서사시 양식의 영화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관객을 압도할 만한 활극과 세트 스케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만약 활영 세트의 규모가 압도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할 만한 특수효과라도 확실하게 갖춰야 했다. 이는 곧 대규모의 영화 제작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다.

CG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 대서사시 양식의 작품들은 장면의 웅장함을 연출하기 위해 대규모 촬영 세트를 설치하고 많은 수의 엑스트라들을 동원해야 했다. 그리고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해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특수효과 기법을 적용해야 했다.

할리우드에서 성공을 거둔 대서사시 양식 영화 대부분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덕에 감독들이 기존에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실험적 기법들을 다수 적용할 수 있었고, 이런 기법들은 이후의 영화 제작자들과 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을 통해 냉전의 냉혹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매카시즘의 열풍이 일어나던 시기, 일부 영화계 인사들은 진보주의와 공산화에 반대하는 미국 내부 여론에 주목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 전통의 가치를 고수하려는 미국인들의 열망에 부응해 성경 혹은 성경과 연관된 서사를 대서사시 양식으로 영상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가정용 TV 보급으로 위협을 느낀 영화계가 TV에서는 느낄 수 없는 스크린 영상의 장대함을 무기삼아 차별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도 역시 반영되어 있었다.

그 결실이 바로 <쿠오 바디스>(1951), <십계>(1956), 그리고 <벤허>(1959)였다. 이런 열풍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장대한 스케일로 표현한 <왕중왕>(1961), <위대한 생애>(1965)가 대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작품들이었다.

◆대서사시와 이교주의: 대서사시 양식과 이교주의 문화의 윤리적 불협화음

성경, 혹은 성경 관련 서사를 영화로 옮긴 이 대서사시 양식 작품들은 여러 중요한 연출 공식을 남겼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화면 구도는 이후 영웅들의 연설이나 웅변 장면에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십계>에 등장하는 불기둥과 울법 돌판 수여 장면은 애니메이션 합성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기법은 스톱모션과 CG 사용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특수효과 연출에 널리 활용되었다. <벤허>의 전차경주 장면은 이후의 거의 모든 경주, 레이스 장면에서 오마주되었다. 특히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이 이 경주를 오마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1950-60년대까지 성경의 서사를 중심으로 제작된 대서사시 양식 영화는 1970년대 <슈퍼맨>과 <스타워즈> 시리즈가 제작된 이후 슈퍼히어로 및 SF 장르로 무게중심이 옮겨졌고, 2000년대 초 <해리 포터> 시리즈와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가 열풍을 일으킨 이후로는 판타지 장르 서사의 영상화를 위해 주로 활용되었다.

약 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런 대서사시 영화 양식의 서사 변화는 미국 내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 쇠퇴를 보여주는 일단면이라



<반지의 제왕>과 <호빗> 트릴로지의 프리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해리 포터>와 <반지의 제왕>의 전례가 없는 대규모 흥행, 그리고 2010년대 <왕좌의 게임> 시리즈 대성공은 작금의 대서사시 양식 영화 및 TV 시리즈가 기독교 신앙과 대척점을 이루는 이교적 초현실주의 및 신비주의의 전과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두 편의 판타지 대서사시 시리즈,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압도적인 제작비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거대한 제작비 규모는 제작자들이 이교주의 대서사시 작품들에 갖는 기대감의 크기를 반영한다.

특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1시즌 전체 제작비가 7억 15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로 역사상 가장 비싼 TV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두 작품 모두 정치적 올바름 이념을 추구하는 각본가와 연출가들로 인해 이교주의 대서사시 양식 작품들이 갖고 있던 고유의 매력, 즉 고대 유럽 켈트 족과 앵글로 색슨 족의 신화적 세계관과 문화양식이 주는 매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교주의 문화가 발산하는 매력의 핵심은 다양한 전설적 이종족들의 위협과 그에 맞서는 마초적 백인 남성 영웅, 그리고 그 남성 영웅을 비호하는 백인 여신 혹은 여성 히로인의 성적 매력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 이념은 마초적 남성상과 가부장적 성역할을 거부하고, 백인 중심 세계관 역시 거부한다.

따라서 정치적 올바름 이념이 반영된 판타지 대서사시 작품들은 서구, 특히 영국의 고전적인 이교주의 문화가 가지는 매력의 상당 부분을 애초 포기한 채 서사를 전개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그 막대한

제작비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이교주의를 표방하는 판타지 서사가 대서사시 양식 영화나 드라마의 대세가 된 사실이 바람직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나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같은 작품들이 정치적 올바름 이념을 표방하는 실정과 서사를 선보임으로써, 이교주의의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판타지 대서사시 양식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고대 서구의 가부장적, 폭력적, 패도적, 성차별적 가치관과 문화 양식을 그 주된 매력으로 삼는다. 때문에 오늘날의 윤리의식을 역지로 들이댈 경우, 판타지 대서사시 양식 본연의 매력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반면 과거 제작된 성경 기반 대서사시 작품들은 치밀하고 순전한 윤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흡입력을 결코 잃지 않는다. 오히려 작품의 서사와 메시지가 윤리적이면 윤리적일수록 더 매력적이고 감동적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윤리적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교주의는 성경의 윤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오늘날 성행하는 진보적 윤리관, 즉 정치적 올바름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윤리적 메시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교주의 판타지 서사를 역지로 정치적 올바름 이념과 연결하려는 처사는 결국 작품의 흡입력과 서사의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대서사시 양식의 작품은 성경의 서사와 어울릴 때 윤리적 교훈의 감동과 서사의 재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오늘날 더 이상 이런 작품들을 보기 어려운 대중문화계의 세태가 아쉬울 따름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청빙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1. 예배 찬양 인도에 대한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2.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기독교 교리에 동의 하는 분
- 사역 내용
 1. 각 예배 찬양 인도 및 찬양팀 훈련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신앙 간증서
 3. 추천서
 4. 찬양 인도 동영상
- 제출하실 곳
beautifulchurch@hotmail.com
- 교회 주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교회 홈페이지: www.beautifulchurch.org

아름다운교회
Beautiful Church

가/을/맞/이 기획전

셀리온과 유한건강생활의 부스터 세트 무료 선물 행사

더 높은 복합효과를 위해 함께하면 더 좋은 세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탈모 예방과 발모 촉진은 모발 성장 인자가 정답입니다



헤어성장인자 함유 헤어 셀 스피클 앰플 구입시



디톡스화잉 + 토닉 + 헤어 셀 샴푸 + 컨디셔너 4종 플 세트

주름없는 탱탱한 피부로 가꾸는 E2F4



특허 등록된 콜라겐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함유 E2F4 앰플 구입시



E2F4 세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유정란 배반엽 애그 스템 셀 세트



BP 앰플 구입시



BP 세럼

젊고 활기찬 건강관리는 믿을 수 있는 유한 건강생활 제품으로



유한양행 전용농장만의 최상급 녹용과 홍삼으로만 만든 전 녹용홍삼 스틱 구입시

전홍삼 스틱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의 건강관리



에스트리션 백수오 더블 구입시

관절과 피부 건강관리 백수오 듀얼 콜라겐



피로한 눈, 건조한 눈, 노화된 눈 건강을 위한 복합세트

간이 좋아야 눈도 건강해진다



눈 건강 루테인 2개 구입시



간 건강 밀크시슬 2개

허리와 근육은 물론 뼈 건강까지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코어 프로틴 스틱 2개 구입시



어골 칼슘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증상 복합관리 에스트리션



에스트리션 백수오 퓨어

여성들 요로와 질 건강에 이노플로라 크린베리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L.A. 점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 738-1188

부에나팍점 소스몰 1층 (714) 523-8100

얼바인점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 800-8788